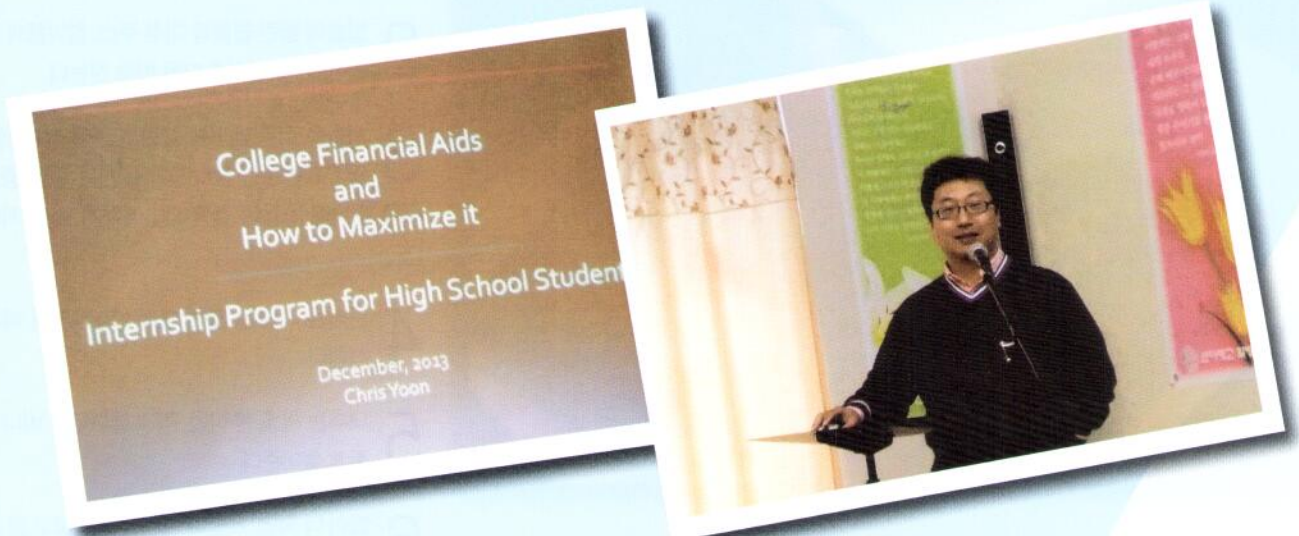


학부모회, 2013년을 마무리하며 학자금 및 인턴십 세미나 개최

샌디에고 한인 학부모회(회장 유니스 리)가 지난 12월 5일 크리스 윤 박사님을 모시고 대입 재정 보조와 인턴십 정보 세미나를 열방교회에서 열었습니다. 크리스 윤 박사님은 지난 수년간 샌디에고 지역, 최고의 수학 교육 및 입시 전문가로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인지 이날 세미나에는 앓을 좌석을 마땅히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세미나는 세심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열띤 강의와 질문으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진행되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다음에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보조 프로그램, 어떻게 잘 활용할까?

흔히 미국 대학 학비는 천문학적인 단위라고 합니다. 한편, FAFSA를 통해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학비 재정을 후하게 보조하기도 합니다. 이날 세미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FAFSA를 비롯한 재정 보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접적인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 수준인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미리 포기하고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학자금을 모으는 가정도 꽤 많지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우 불리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FAFSA의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다면 각 가정마다 전략을 세워볼 여지가 은근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윤 박사가 꼭 짚어 강조한 포인트 가운데 몇 가지를 알려드리죠.

◆ FAFSA 신청은 무료입니다.

Google에서 FAFSA를 검색하여 들어갔는데 비용을 요구한다면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수상한 사이트라는 말이죠.

◆ 기년연도(Base Year)의 AGI(adjusted gross income)을 틀어넣시오.

2014년 입학 위해서는 2013년이 기년연도 Year가 되므로 이 해에 소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보너스, 주식 매도, 주택 매도, 모두 이 해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명의의 재산이 학생 명의의 재산보다 낫습니다.

모든 재산이나 소득이 같은 비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은 22~47%, 재산은 5.64%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아이의 소득은 50%, 재산 20%가 학비를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가능한 아이 명의의 금융상품이
나 기타 재산은 형성하지 마십시오.

◆ **살고 있는 집은 튀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거주하는 집(primary home)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대출 받기도 쉽습니다.

◆ **노후 연금을 활용하십시오.**

IRA와 401K는 학비를 낼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
로 최대한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고요? 후반부에 있었던 인턴십 강의도 듣고 싶으시다고요? 그렇
다면 학부모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지나간 강의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 학부모회는 2014년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나은 교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새로 오신 분들은 내 아이가 혜택을 놓치지 않
도록 꼭 가입하셔야 할 겁니다. 회비는 없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 학부모회 회원가입 안내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DKPA

+ 이메일 SDKoreanParents@gmail.com

정리 | 학부모 통신원 박은영



자서전을 만들어드립니다

이민의 삶, 굽이굽이 사연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국에서는 50, 60, 70세를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는 대신
자서전을 만들어 자녀와 친지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을 잘 못써도 괜찮습니다.

필자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필자는 한국의 우수한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여러 권의 책을 펴낸 중견작가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상담하세요.



출판사

Tel. (858) 472-5304